

- 주요 뉴스: 미국 백악관, 10/30일 美中 정상회담 개최. 사전 실무회의는 24일 시작
 - 미국 9월 기존주택판매, 7개월 만에 최대. 정부부채의 가파른 증가는 지속
 - EU,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에 중국 2개 업체 포함.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는 개선
 - 중국 4중전회 폐막, 첨단기술 자립 강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의지가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美中 정상회담 확정, 러시아 석유기업 제재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6%], 달러화 강보합[+0.04%],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對中 무역갈등 완화 기대,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항공·방위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한 미국 국채금리 등으로 강보합 마감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 가치는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34.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7.0원, 0.18% 하락). 한국 CDS 강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10/23일	10/22일	전일대비			10/23일	10/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38.4	6,699.4	+0.58%	국채금리 10y	미국	4.00%	3.95%	+5bp
	유럽	574.43	572.29	+0.37%		독일	2.58%	2.56%	+2bp
	중국	3,922.4	3,913.8	+0.22%		영국	4.42%	4.42%	+1bp
	일본	48,642	49,308	-1.35%	CDS 5y	한국	25bp	25bp	+0bp
	한국	3,845.6	3,883.7	-0.98%		중국	45bp	45bp	+0bp
환율	달러지수	98.94	98.90	+0.04%	위험지표	EMBI+	-	288	-
	유로화	1.1618	1.1611	+0.06%		VIX	17.30	18.60	-6.99%
	엔화	152.57	151.98	-0.39%		WTI유	61.79	58.50	+5.62%
	위안화	7.1233	7.1251	+0.03%	원자재	구리	511.1	499.6	+2.30%
	원화	1,439.6	1,429.8	-0.68%		금	4,126.3	4,098.4	+0.6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백악관, 10/30일 美中 정상회담 개최. 사전 실무회의는 24일 시작

-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10/30일(목)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과 대면 회담에 나설 전망이다. 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 대화가 양국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좋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미국의 기술 제재 및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지속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 특히 11/10일 양국 간 관세 휴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만남은 향후 양국 관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수출, 핵군축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터뷰에서 희토류보다 관세가 더 강력하다면서 희토류는 하나의 혼란 요인에 불과하다고 지적
- 중국 상무부는 이번 주 24~27일 허리핑 부총리가 이끄는 무역협상단이 미국 측 협상단과 말레이시아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갖는다고 발표.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부문의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첨언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고 밝혔고, 재무부는 이에 맞춰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2개 대형 석유기업(로스네프트오일컴퍼니, 루코일)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9월 기준주택판매, 7개월 만에 최대. 정부부채의 가파른 증가는 지속

- 9월 기준주택판매는 406만건(연환산)으로 전월(400만건) 대비 늘어났으며, 이는 2월 이후 최고치. 시장에서는 향후 경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모기지 금리의 하락이 기준주택판매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
- AP통신은 재무부 자료를 근거로 8월 37조달러를 기록한 정부부채가 21일에는 38조달러를 돌파했다면서 2개월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했다고 보도. 사회보장비 및 의료 서비스비 등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

■ JPMorgan, 10월 FOMC에서 양적긴축 종료 예상. 주가 상승-금리인하는 지속될 전망

- JPMorgan은 다음 주 예정된 10월 FOMC에서 양적긴축 종료가 예상되고,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공개시장조작도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 이는 최근 다소 빠듯해진 자금조달 여건을 고려했다고 부연. 아울러 이번 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 결과와 상관없이 고용 둔화 등의 여파로 기존의 금리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 아울러 주가의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

■ EU,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에 중국 2개 업체 포함.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는 개선

- EU는 러시아 관련 제재 리스트에 페트로차이나 등 중국의 2개 정유사를 포함. 페트로차이나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여 러시아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 피력. 한편 통계국에 따르면, 유로존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4.2를 기록, 전월(-14.9) 대비 소폭 개선

■ 중국 4중전회 폐막, 첨단기술 자립 강조. 지속적인 경제 성장 의지가 반영

- 공산당은 23일 4중전회를 마치고 성명에서 향후 5년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과 자립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청사진 제시. 또한 복잡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제시. 아울러 내수 진작, 소비 촉진, 투자 확대 등도 강조

■ 로이터 설문조사, 일본은행 10월 통화정책회의는 금리 동결 전망

- 로이터의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 다만, 50% 가량은 12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내년 1월까지 포함할 경우 인상을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98%
- 주요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24일 의회 연설에서 규제 완화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을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 한편, 일본은행은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 다만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2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소비자물가,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및 S&P 글로벌 종합 PMI
- 유로존 10월 HCOB 종합 PMI, 영국 9월 소매판매, 일본 9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공공부채 공포는 과장, 더 위험한 시안은 복잡한 민간금융 구조 - Financial Times**
(Are we worrying too much about public debt?)
 - 공공부채가 문제일 수 있지만, 이는 화폐환상과 금리상승에서 비롯된 과도한 공포. '19년 이후 전세계 정부가계·비금융기업 부채의 합은 GDP의 230%에서 235%로 증가했을 뿐이며, 미국의 GDP 대비 정부 이자 부담도 '90년대 후반 수준. 대부분 선진국의 대외부채 위험은 과거보다 안정적이며, 투명도도 높은 편
 - 반면 국방지출 확대 등 실물자원 배분, 대외부채 의존, 민간부문의 복잡한 금융구조는 실제 위험 요인. 또한 통상적으로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나 과대평가된 투자가 먼저 무너지고, 그 여파가 정부로 전가. 결국 재정위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오히려 위기 해결의 일부가 될 가능성
- **미국 경제, 불확실성·저소득층 우려 불구 실제 신용 악화 현상은 제한적 - WSJ**
(What Credit-Card Trends Tell Us About the U.S. Consumer, in Charts)
 - 무역전쟁 심화, 섣달의 장기화 우려, 고용 부진 등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지출 둔화 가능성을 지적. 하지만 6대 주요 카드사의 3/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동기비 7.5% 증가. 또한 주요 카드사의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들의 재무 건전성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판단
 - 저소득 계층에서 일부 스트레스 징후(자동차 대출 연체 증가, 실질 지출 감소 등)가 있지만, 신용 점수가 높은 차용인들의 신규 지출 증가 등으로 전체 가계 소비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 몇몇 은행은 연체율 하락세 등으로 대출 확대 여건도 추진. 이를 반영하듯 신용 악화는 시작되지 않았으며,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BofA)
- **美中 무역전쟁, 중국은 새로운 무역규범 등으로 우위 확보 시도 - The Economist**
(Why China is winning the trade war)
 - 美中 양국은 기술 수출제한 vs. 희토류 제재 등으로 맞대응. 특히, 중국은 미국의 강압에 더욱 강하게 보복하는 '확전 우위(escalatory dominance)' 시도. 일례로 미국이 중국 컨테이너선에 관세 부과하자 자체적인 항만세를 부과. 또한 제조업의 강점과 글로벌 최대 무역국이라는 입지를 활용해 무역규칙 재편을 도모
 - 중국은 내부 결속도 강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침체 등의 어려움에도 다수는 기술 산업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에 대응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시도를 긍정 평가. 이를 감안하면 조기의 美中 갈등 완화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

■ **일본 연립정부, 재정지출 확대 예상. 인플레이션 대응 등은 미진할 가능성 - Reuters**

(Japan's new coalition eyes big spending, but not Abenomics 2.0)

-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으로 다카이치 내각 출범. 특히 아베노믹스의 지지자인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설 전망. 연립 내각 역시 경제 성장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성을 시사
- 하지만, 경제는 엔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있으며, 이를 위한 적합한 통화정책이 요구.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의 아베노믹스와 달리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에는 다소 소극적일 것으로 추정. 이에 일부에서는 향후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

■ **미국 경제, 무역전쟁의 충격은 단기적으로 제한적,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훼손 - 블룸버그**

(Does the world economy know there's a trade war?)

■ **영국 파운드화 랠리, 금리인하 가능성·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역풍 직면 예상 - 블룸버그**

(Sterling's Rally Must Battle Winter Headwinds)

■ **중국 4중전회, 기술자립 및 첨단제조업 투자 등으로 미국과의 기술경쟁 본격화 시사 - WSJ**

(China Gears Up for More Tech Confrontation With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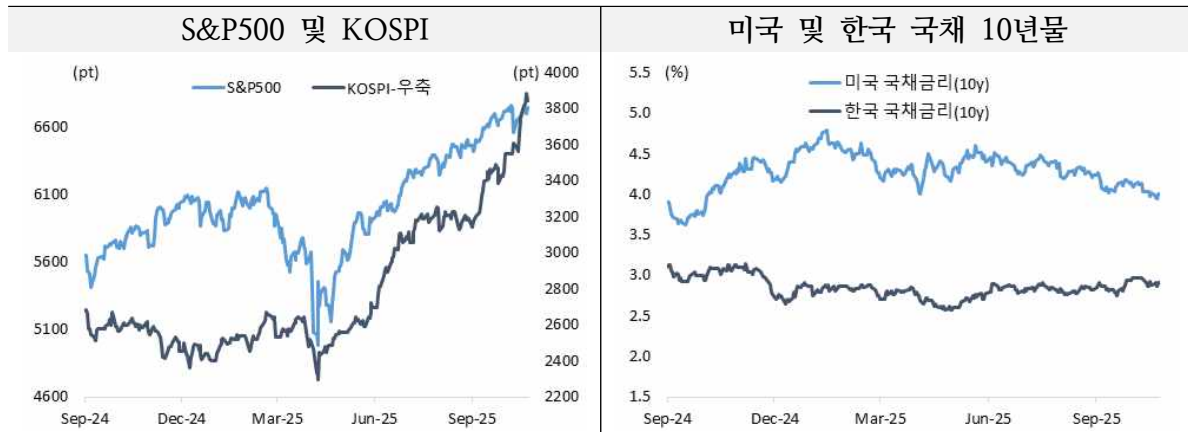
■ **중국 제조업의 치열한 자국 내 경쟁, 해외진출 모색 기회로 작용할 소지 - Financial Times**

(For China, 'involution' is a blessing as well as a c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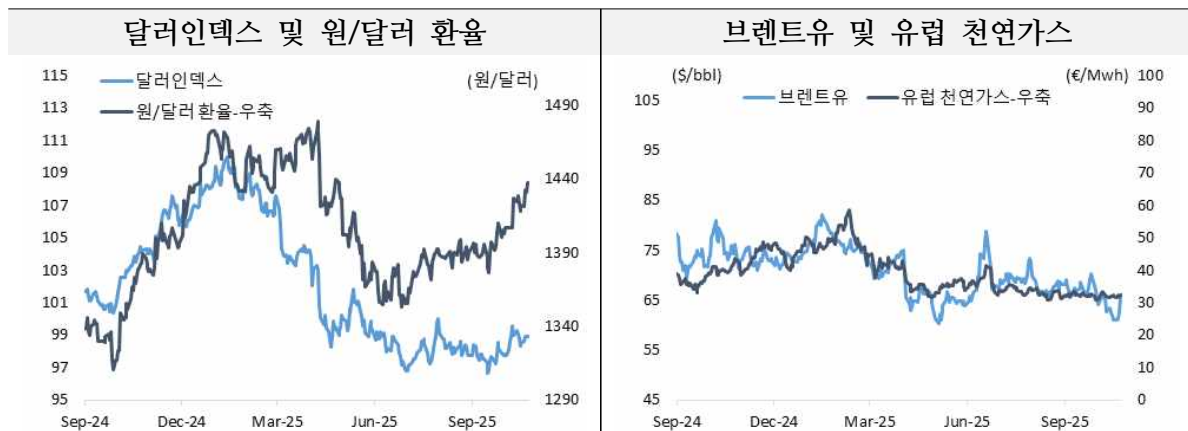
■ **국제 유가, 공급 과잉 우려로 하락 지속 전망. 지정학적 영향은 일시적 - 블룸버그**

(Have Oil Prices Bottomed Out? Let's Hope Not)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